

# 한국 대중음악 속의 저항의식 - Folk와 Rap Music 속의 저항의식 비교분석 -

최용선  
국제대학 실용음악과  
e-mail : agschoi@naver.com

## Resistance Consciousness of Korea's Popular Music - Comparative analysis in the Folk music and Rap Music -

Yeong-Seon Choi  
Dept. of Applied Music, Kookje College

### 요 약

본 고에서는 포크음악과 힙합(랩)음악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른 시대적 호응에 따른 저항의식을 알아보고 그러한 저항의식이 시대적으로 포크와 힙합(랩)음악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묻어나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서 론

현 우리의 대중문화를 살펴보면, 소비의 주체인 10대 위주의 편중된 문화가 자리매김을 하며,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미디어에서는 연일 보도가 되고 그것에 밀려 기성세대의 문화는 거의 자리를 잃어 가거나 음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 기성세대들은 나라를 위해 수많은 투쟁을 벌여왔었다. 비근한 예로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대학가에서 최류탄 냄새가 가 실날이 없었었다. 그때와 지금의 대학가 풍경은 사뭇 다르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현실이 그래서 그런지 나를 위해 사는 학생들만 있는듯하다. 이런 투쟁의 시기를 보냈던 기성세대들의 문화는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 나라를 걱정하고 잘못된 문화를 잡으려는 운동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딘가에 숨어서 나름의 걱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잘못된 문화를 다시 잡아 일으키려는 행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속에서 우리의 저항의식은 어떻게 변화 되어왔나를 살펴보고 과연 지금의 대중음악 속에는 저항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있으면 어떻게 표출되고 있으며, 수용계층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고 대중음악을 통한 좀 더 나은 문화와 사회를 위해 올바른 저항의식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적인 사례분석의 방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문헌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관련서적과 선행 연구자의 학위 논문 및 연구기관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고, 실증적 분석에 있어서는 실제 저항의식이 담겨있는 포크(Folk)와 랩 음악(Rap Music)의 대표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 2. 본 론

#### 2.1. 포크음악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또 한 번 6.25라는 커다란 사건이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되고, 일제 강점기 때 유행했던 '엔카' 혹은 일명 '뽕짜'으로 경박시되던 '트로트'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미군들에게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팝 음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악기 중에 '통기타'라고 불리던 '어쿠스틱 기타'야 말로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통기타는 휴대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외국곡을 번안해서 불렀던 경우가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이 자신의 생각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야 말로 젊은이들의 해방구나 다

름이 없었다. 여기서 통기타의 진영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편은 상업성을 배제한 순수한 포크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프로테스트(protest) 포크음악이 바로 그것이다.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핀 웃음이 내발걸음 가벼웁게 /  
 온종일 걸어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가방을 흔드는 그 손이 아름다워 /  
 뒷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늘어진 가로수 내발걸음 가벼웁게 /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길가에 앉아서> (윤형주 작곡, 김세환 작사) : 순수포크 음악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춰봐도 /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  
 보이는 건 모두 돌아왔았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 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속에 뚜렷이 있다 /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 삼등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고래사냥> (송창식 작사, 작곡, 노래) : 프로테스트 포크 음악

2.2. 랩과 힙합음악(Rap, Hip-hop Music)

랩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홍서범씨의 '김삿갓'을 최초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년도에 김완선씨가 이장희씨의 '그건 너'를 리메이크한 것을 우리나라의 최초 랩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태지의 1집 중 '난 알아요'를 우리나라 최초의 랩 음악이라고 보고 있다. 아마도 힙합(Hip-Hop)의 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그만큼 힙합과 랩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랩 음악을 알려면 우선 힙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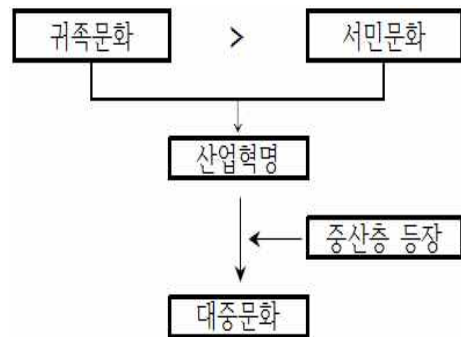
힙합은 단지 음악의 한 종류로만 볼 수는 없는 것

이다. 흑인들은 언어, 스타일, 태도, 사회관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저항의식을 표출하였고. 그 중 음악, 춤, 패션, 그래피티(낙서)등으로 힙합 정신을 대변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중, 지껄이다라는 뜻의 랩은 미국의 50년대 사회상과 맞물려 피어나기 시작해서 70, 80년대의 피폐한 흑인들의 생활방식이자 생존방식이었고, 80년대 레이건노믹스 시대복지 정책의 후퇴로 인하여 더욱 심화된 사회 경제적 소외에 대한 그들만의 외침이었다. 이것은 곧 하위문화로서 비주류인 흑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주류인 백인사회에 대한 그들만의 급진적인 담론이자 저항의 외침이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내 강아지에 이름은 망치예요 /  
 그럴 땐 망치 얼굴 쳐다보기 민망해져요  
 누가 잘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  
 내 눈에는 모두다 똑같이 보여요  
 그렇게 싸우고 또 화해를 해요 /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 뿐이었죠  
 이젠 바뀌어야해 우리가 바뀌어야해요 /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  
 그렇게 삐걱대며 세상은 돌아가요  
 <삐걱삐걱> (DJ. D.O.C 작사, 작곡, 노래) : 랩 음악

2.3. 저항의식

언제, 어디 다시 말해 어느 시기, 어느 나라냐에 관계없이 저항이라는 의식은 항상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1> 중산층과 대중문화의 등장

과거 계급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

면서 중산계층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곧 대중문화 부흥의 시작점이 됨과 동시에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계급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중산계층의 등장이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수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저항의식의 공명’이라는 점일 것이다. 계급 사회 때에도 물론 저항의지는 있었지만, 서로 몽치거나 협력 등의 작업을 통해서 계급사회에 대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계급주의 붕괴이후로 중산계층들은 서로 협력하게 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중이라는 형식의 또 다른 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공감, 즉 공명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들은 Union을 형성하게 되고, 기존의 권력층에 저항을 시작하게 되고 이것은 곧 사회의 한 부류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사회현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나 권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3. 결론

각종 이동수단의 발달을 시작으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어디서든 누구와도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24시간 돌아가는 수많은 TV채널, 급변하게 바뀌는 새로운 트렌드들로 인해 ‘요즘 세대들은 인내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바로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화적 빠름’의 결과중 하나가 바로 랩이라는 장르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서태지의 등장을 기점으로 Folk음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 반면 Rap과 Hip-Hop음악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한 점이 바로 포크와 힙합(랩)음악을 비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변화가 바로 음악의 가사에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재미있는 연구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본 고에서는 포크음악과 힙합(랩)의 저항의식에 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음악 사이에는 확연히 다른 저항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비교해보자.

<표 1> Folk음악과 Hip-Hop(Rap)의 비교분석

구분	FOLK	HIP HOP (RAP)
성향	대중성	개인성
음악의 속도	느리다	빠르다
가사의 양	적다	많다
선정성	낮다	높다
인식도	높다	낮다
공감도	높다	낮다
일반인의 연주도	쉽다	어렵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우선, 성향적인 면에서는 포크와 랩 음악은 대중성과 매니아 층이라는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다들 알다시피 음악의 속도적인 면과 가사의 양적인 면에서도 포크와 랩 음악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정적 인면에서는 포크는 은유적인 표현이나 메타포적인 표현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랩 음악은 직설화법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완곡하지 못하고 욕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청중의 인식도적인 면에서는 포크는 느린 사운드에 가사가 얹혀지기 때문에 청중의 인식도가 가사 위주의 인식으로 인하여 인식도가 높은 반면 랩 음악은 그들만의 언어 혹은 빠른 랩의 속도감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기는 힘든 점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공감도는 당연히 포크쪽이 더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크음악은 어쿠스틱기타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코드 몇 개만 알면 쉽게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반면 랩 음악은 Mixing이라던지 Mcing등을 기본적으로 알고 거기에 많은 양의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 빠른 랩을 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청중들이 연주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크의 저항의식이 느린 템포로 완곡하고 은유적이고 메타포를 가지고 사회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힙합의 랩 음악은 빠르고 역동적이며 직설적이고 선정성을 이용하여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의 반항심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고래사냥’과 ‘삐걱삐걱’의 가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래사냥’에서는 이상향을 ‘동해바다’와 ‘예쁜 고래’로 은유적 표현을 한 반면에 ‘삐걱삐걱’에서는 ‘이젠 바뀌야해 우리가 바뀌야해’라고 직설적으로 노래하며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고래사냥’에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춰도 슬픔뿐’이고, ‘무엇을 해도 전부 나와는 반대로 돌아앉아 있다’고 현 체제와 경제상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 후자인 ‘삐걱삐걱’에서는 ‘뉴스를 봐도 코미디처럼 웃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개판’이 된다는 식의 직설화법으로 강하게 현 사회상과 정치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음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회성을 반영한 연구가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1] 김지영,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 문예마당 1995
- [2]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3] 백선기,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4] 윤용원, “랩과 사설시조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5] 임종세, “한국 랩 음악의 저항성 연구: DJ. Doc의 랩 가사에 드러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6] 임진모, “젊음의 코드 록”, 북하우스, 2003
- [7] 강연진, “한국 근대 대중가요 형성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8] 전체주,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위상과 의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9] 한나영, “90년대 후반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소비자 성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